팔판동의 고유한 풍경을 들이다

에이 비앤비

실내에서 바라본 팔판동 풍경

저마다의 특징이 있는 객실

에이비앤비의 옥상 전경

객실마다 크기가 다른 창과 욕실

Abnb QR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길 32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기준 1km
02-735-8200 www.abnbseoul.com
76,500원 ~ 161,500원 (시즌별 상이)
in 15:00 / out 11:30
Day 2014년 5월 26일 En In Wifi

가까이 경복궁과 삼청동을 둔 팔판동은 골목마다 숨길 수 없는 담박함이 배어 있다. 나긋한 발걸음과 소란스럽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갔을 법한 팔판동 골목 어귀에 에이비앤비가 있다.

20년 된 다세대 주택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개조한 터라 실내에 들어서면 미처 상상하지 못한 전경이 더욱 새롭게 다가선다. 벽지의 색과 무늬, 전등, 의자, 작은 소품에 이르기까지 골동품과 미술품 애호가인 주인장의 안목에서 비롯되어 사소한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 침실과 욕실, 계단참에 최적의 모습으로 빼어진 창들에 시선이 간다.

방향과 크기를 세심히 설계한 창마다 선이 고운 한옥의 처마들을 비추고 명산의 기운이 서린 북악산 자락을 펼쳐 보여준다. 에이비앤비 밖의 고유한 풍경을 안에 들인 창들은 이곳이 가진 최고의 작품은 팔판동이 품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정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문난 1층의 빵집 노아베이커리에서 조식을 챙기고 푸른 잔디가 발을 감싸는 옥상에 올라 바깥 풍광을 천천히 둘러보자. 에이비앤비에서의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다.